

치 사

“21세기 장인들이 재현한 전통의 멋”

만물의 결실을 보면서 마음마져 풍성함을 이루는 가을을 맞아 문화재 보수와 복원이라는 분주한 소임을 수행하면서도 불교문화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의 11번째 작품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외래문화의 분별없는 범람으로 민족문화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전통 문화와 가치는 더욱 밝은 빛을 발합니다. 마치 오랜 세월 멈추지 않는 강물과 같이 우리의 삶과 함께 흘러 온 문화유산은 현대인의 마음속에 반짝이는 물빛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대의 정신이 깃든 아름다운 문화재를 현대에도 온전하게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혼신의 노력을 다한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불교회화, 공예, 조각, 건축 등의 보존과 발전에도 지대한 역할을 해오신 것은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공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멈추지 않고 꾸준히 전국의 문화재를 보수하고 복원하는 일에 매진해 오신 여러분의 정성이기에 작품 하나하나가 너무도 소중하며 이번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전>의 의미가 남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통 기능의 멋과 감동을 재현하고 발전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재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6(2012)년 10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